언약 300%

(이사야 65:17-25)

이미 가슴에 언약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되어질 거란 걸 한번 더 누리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셨고, 그것이 부활 메시지 4개입니다.

잘 아는 데로 제자, 치유, 후대와 땅끝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주님의 명령을 요약한 것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은 전 세계 나라 수를 표현한 것이며, 사도행전 1:8에 땅끝에서 나왔습니다. 치유는 마가복음 16:15-20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고, 서밋은 마태복음 28:18-20과 요한복음 21장이 그 말씀입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단어가 3가지 뜰입니다. 3가지 뜰은 본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모든 의식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사상을 담은 것이 성전의 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방인을 위한 뜰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이방인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 중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을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두 번째 뜰이 기도의 뜰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곳이며, 기도로 치유 받고,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도 뜰의 문을 열어두어 성전의 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상적 통로가 뜰인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길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과 성전의 정신을 따라가면 실패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첫 번째가 금토일 문화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금토일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립니다. 과거의 율법을 지켜도 그들은 지금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성경대로 키우면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네피림 문화는 금토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언약이 사라지고 세상 문화가 살아나는 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정신병과 중독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언약을 버리고, 세상 문화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명상으로는 문제를 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명상은 결국 귀신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깊이 묵상 되어지는 기도의 시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전의 3뜰 사상과 약속,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이것이 우리가 열어야 할 3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사명자들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언약 300%

300% 단어는 누구든지 인정하고, 그대로 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성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평균보다는 뛰어나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게 현장성 100%입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100% 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적용되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준비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대를 이어 성공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젖 먹는 나이에 들었는데도 어른이 되어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복음에 확실히 답이 난 자였습니다. 복음에 전문성을 띈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시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통해 광야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사건에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너무나 현장적이어서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시대의 광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언약이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잡지 않았다면 광야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 주셨습니다(만나와 메추라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완전하게 길을 인도하심으로 목말라 죽은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은 매일 4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늘 인도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모세가 잡은 언약의 현장성은 100%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원리보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장성 100%는 100%를 넘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제자를 붙이셨고, 그 일을 지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 300% 인생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모세가 언약 300%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부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살아있는 사실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 전체를 완전히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지식은 완전 100%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결론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뚜껑이 열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완전한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사하게도, 축복이게도 아나니아가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 언약 100%가 됐습니다. 그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했는데, 수많은 현장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이 기적을 봐야 할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100을 넘어서겠지만 이것이 바울의 현장성 100%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제자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제자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미국보다도 힘든 곳입니다. 그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언약 300% 인생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300%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의 언약 인생을 사는 자들에겐 매일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눈 열림이 그들에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세계였을 것입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바울의 경우도 같습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많은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책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19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고, 잡아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20절에는 날 수가 많이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을 것이라 하셨고,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21절에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못하고, 그들이 심는 것은 타인이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와 같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응답을 보면 이 정도 표현도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네 수명이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기적을 네 인생에 보이겠다, 내가 주는 기적을 네가 받으면 이 표현으로 모자란 것을 체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루에 10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발견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먹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며, 성산에는 해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 지키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 선언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매일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인생에 없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백세에 죽으면 젊은이라는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게 하겠고, 네가 건축한 데에는 타인이 못살게 하겠고, 네가 심은 것을 타인은 절대 먹지 못하고, 네 수명은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헛되지 않고, 누구든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고, 기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 들었다.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며,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와서 절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주를 정복하고, 노예가 총리가 되는 인생, 포로가 황제의 지도자가 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은 하나, 내 언약을 잡으라.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내 언약을 따라오라. 아무도 네 미래를 아는 자는 없으며, 아무도 미래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나 하나뿐이다.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결론을 내고,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지 않아도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어느 날 300%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모세처럼 되고, 바울, 요셉, 다니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300%의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응답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성취될 언약입니다. 옛날에 이미 성취된 것들입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었고, 세우지 않은 성을 차지했고, 짓지 않은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말씀. 그 언약 300%입니다. 기적의 연속이 되어지면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 300% 인생이면 가능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초월할 언약을 이미 잡고 있었고, 한나는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로 아들 사무엘이 시대를 뒤집게 됩니다. 한나가 어느 날 꿰뚫은 언약 하나 때문에 나라, 가문, 자신의 응답, 시대까지 살아납니다. 문제도 한 가지, 답도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 300%. 바울은 이 언약의 증인입니다. 지금도 그는 그 언약 300% 진행형입니다. 본문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 성취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잡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전달되어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잡은 언약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10번씩 읽으며 말씀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눈이 열려 시대를 꿰뚫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증인이며, 우리 모두 이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평생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